

레닌 『제국주의론』에 나타난 방법론적 특질

김 승 석
경 제 학 과

<요 약>

이 논문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나타난 방법론적 특질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1차대전의 계급적 성격을 구명하기 위하여 역사과정을 재관적으로 인식하고자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방법론적 특질은 다음과 같다.

1. 『제국주의론』전체에 걸쳐 변증법적 유물론이 관철된다. 이것은 플랜의 변화과정, 유통주의적 관점의 극복, 생산의 집적에서 독점개념의 유도, 금융자본의 형성에 잘 나타나고 구체화된다.

2. 다른 제국주의논자와는 달리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단계로서 위치지운다. 이것은 자유경쟁 자본주의의 단계와는 다른 제국주의단계를 설정함으로써 1차세계대전이 제국주의전쟁임을 폭로하는 실천적 의미를 내포한다.

Som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in Lenin's Imperialism

Kim, Seung Seock
(Dept. of Economic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in Lenin's Imperialism. In his Imperialism Lenin strived to recognize the process of history objectively in order to study World War I from the point of view of class. Hi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in Imperialism are as follows.

1. Imperialism is based on the dialectical materialism. This has become concrete in changes in his plan, overcoming the point view of circulation, inferring monopoly from the concentration of production and the formation of finance capital.

* 이 논문은 1988년도 대학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Lenin placed imperialism as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while the others regarded it as a policy. This means Lenin's practice to expose that the World War I is the imperialist War.

목 차

- I. 문제제기
- II. 『제국주의론』의 성립배경
- III. 『제국주의론』의 방법론적 특질
- IV. 결 론

I. 문제제기

현대세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현상하지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현대 세계의 제모순을 추상한다면 다음과 같은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자본과 임노동의 대립, 둘째, 제국주의와 식민지·종속국의 대립, 셋째, 제국주의 상호간의 대립, 넷째,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다. 역사의 전개와 더불어 이들 4대모순은 각각 자기발전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관련을 가지고 주종관계를 변용시키면서 현대에 이르렀다.¹⁾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자본과 임노동의 대립은 자본주의 성립과 동시에 형성되었고, 제국주의와 식민지·종속국의 대립, 제국주의 상호간의 대립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파생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대립은 자본주의의 지양 즉 러시아혁명과 동구 및 아시아에서의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이들 제모순이 발현되는 역사적 시기는 다르지만 모두 자본주의의 성립 발전 소멸과정에서 나타났고 현대에는 비상하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주지된 바이다.

우리가 현대세계 전체의 운동법칙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 4대모순을 병렬적으로 혹은 나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고, 역사과정속에서 형성된 제모순의 유기적 관련 즉 제모순의 상호관련과 상호작용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세기말~20세기초의 역사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고전적 제국주의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야말로 자본주의적 발전이 질적으로 비약하는 시기이며 일국 사회주의혁명의 전야이기 때문이다. 실로 19세기 말~20세기 초는 현대세계에 내재한 모순구조의 매듭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따라서 그 논리적 귀결인 고전적 제국주의론은 모순구조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본주의의 일반법칙에 입각한 제국주의 연구없이 현대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고전적 제국주의론이 현대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 있거나 그것을 무매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올바른 이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점만 강조하고자한다.

소위 고전적 제국주의론은 고전적 제국주의시기 즉 19세기말~20세기초의 역사과정을 이룬 화한 것으로서, Hobson의 *imperialism, a study*(1902), Hilferding의 *Das Finanzkapital*(1916)

1) 이에 대해서는 佐佐木雄太(1978)을 참조.

Rosa Luxemburg의 *Die Akkumulation des Kapitals*(1913), Kautsky의 세계의 논문, 즉 *Der imperialismus*(1914), *Zwei Schriften zum Umlernen*(1945), *Der Imperialistische Krieg*(1917), 그리고 Lenin의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1917)²⁾ 등으로 대표된다. 흡슨, 힐 퍼딩, 로자 룩셈부르크, 카우츠키는 그들 저작이나 논문에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태에 대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전개하고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국주의를 「하나의 정책」, 즉 선진자본주의제국의 대외팽창정책으로 파악한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이들의 이론과 개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통일성을 부여한다. 즉 제국주의를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가장 발전된 역사적 단계」로서 위치지운다. 앞서 나온 제이론을 포괄하고 방대한 문헌과 통계자료를 구사하면서³⁾ 독점과 제국주의 시기를 평이하게 서술한 레닌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이하 『제국주의론』으로 약칭한다)는 실증적 이론적인 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국주의론』에 내포된 기본개념, 기본명제, 현대자본주의와의 관계를 검토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현대세계의 모순구조를 파악하는 일환으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나타나는 방법론적 특징을 고찰하고 단계규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국주의론』의 성립배경

1873년의 공황으로부터 1890년대 초에 이르는 대불황기⁴⁾는 자유경쟁적 산업자본주의단계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적 단계이다. 이 대불황기가 경과한 후 자본주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격을 띤 정치적 경제적 제현상을 현저하게 노출시켰다. 자유경쟁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던 자본주의가 비약적인 생산력발전과 심화된 공황에 의하여 자신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다. 즉 생산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을 통해 대기업 대은행이 창출되어 결합하고 이들이 전 경제생활을 지배하기에 이른다.

당시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선진제국에 있어서 독점의 형성과 발전의 양태는 각국이 가진 역사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지만,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후발 자본주의제국은 주식회사의 설립, 고율보호관세정책등에 의해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을 수행하여 영국의 아성에 도전하고있었다. 그 결과 세계시장에 있어서 영국의 절대적 지위가 위협받았고 세계경제의 지배구조는 영국단일의 지배체제에서 영국·독일·프랑스·미국의 다수국지배체제로 이행하고 있었다.⁵⁾ 특히 1900~03년의 공황⁶⁾을 계기로 각국의 산업기업(특히 석탄·철강업, 전기산업, 석유산업, 해운업)과 은행은 국내독점에서 나아가 국제적 독

2) 『제국주의론』에 선행된 연구로서 『제국주의론 노트(Notes on imperialism)』(Collected Works Vol 39.)가 있다. 이 초고는 1915~16년에 집필되었으나 후에 발견되어 1933~38년에 출판되었다.

3) 레닌은 『제국주의론 노트』를 집필하면서 148권의 책, 232개의 논문 43권의 정기 간행물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Collected Works Vol 39.20면

4) 1843년부터 1873년까지는 호황기가 21년 불황기 10년인데 비하여, 1873년 부터 1894년까지는 호황이 6년 불황기가 15년으로 호황기와 불황기의 위치가 역전되었으며 1873년 이후의 호황은 미약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장기적 만성불황으로 특징지우는 「대불황기」라고 한다.

5) 大崎平八郎, 久保田順 (1973), 29면.

6) 1900년 공황의 영향에 대해서는 Jeidels(1905) 108~109, 181면, Mendelison(1960) 제 4분책 제 5장을 참조할 것. Lenin은 이 공황을 세계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구분짓는 중요한 역사적 지표라고 생각했다. (Collected Works Vol 23, 156.111면)

점으로 발전하고 여기에서 확립된 금융자본은 세계지배와 관련하여 군비증강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 식민지지배를 둘러싸고 무력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세계전쟁의 임박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사회주의 제정당에서는 임박한 세계전쟁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술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임박한 세계전쟁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최근 자본주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결했다. 1907년 스투트가르트와 1912년 바젤 양대회에서 서구의 사회민주당은 임박한 세계전쟁을 제국주의적 반동적 노예제적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전쟁발발의 방지에 전력을 경주하고……그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조속한 종결을 보장하여 전쟁에서 파생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이용하여……자본주의적 계급 지배의 폐기를 촉진 하는데 매진해야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세르비아와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의 사회주의 제정당은 자국정부의 군사 공채발행에 찬성투표하고 입각하여 조국옹호의 스토크렌하에 전쟁협력의 자세를 취했다. 제2 인터내셔널이 전쟁에 대한 반대의 태도를 관철하지 못했던 원인은 이들 제정당에 수정주의세력이 온존하고있어서 1차세계대전이 제국주의단계의 필연적 산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지 못했다는데 있었다.⁸⁾ 여기에 독일 사회민주당 중앙파의 대표자 카우츠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⁹⁾

카우츠키는 자본주의를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폭력이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착취양식으로 간주했다. 그에 의하면 1880년대 이후 자본주의는 새로운 발전을 수행하고 새로운 식민지를 획득하고 세계시장을 확대하기에 이르고 중공업자본, 고도금융(*high finance*)을 주체로 하는 폭력적인 세계정책이 등장한다. 자본주의 발전에 고유한 제국주의 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에서 모순을 격화시킨다. 한편으로는 세계정책의 수행과정이 군비증강을 수반하여 국민적 대립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국의 노동자에게 군사비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보다 공업의 진보를 마비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자본수출이 비유럽 즉 동양사회를 자본주의화시키며 이는 곧 유럽의 착취에 대한 반항을 야기한다. 이러한 모순의 격화는 제국주의의 정체를 의미하며 제국주의의 정체는 혁명의 가능성과 군비경쟁을 통한 국민적 대립의 산물인 세계전쟁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국주의는 비합리적인 요소이며 제국주의와의 투쟁은 비합리적인 폭력적인 방법과의 투쟁이라고 카우츠키는 생각했다.

제국주의가 창출한 혁명과 전쟁의 양자택일적 상황에서 동맹자는 갖지 못한 고립된 프로레

7) 스투트가르트 대회의 결의안, 바젤선언을 참조, 山本統敏編(1975), 451, 495면.

8) 당시 제2 인터내셔널은 자본주의적 공격전쟁과 민족해방전쟁을 구별하지 못하고 회의때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평화를 옹호하는 결의안만을 통과시킬 뿐이었다. 제2 인터내셔널 구성과 성격에 대해서는 R.N Carew Hunt(1961), 125~126면, W.Z. Foster (1955)을 참조.

9)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 좌파는 사회구조에 대응하여 독일사회의 민주주의화(근대화)와 사회주의화를 동시 병존적으로 요구했다. 개량에 의하여 세력결집을 주장하는 중앙파와 독일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성에 의거하여 제국주의 독일 전체와의 대결을 주장하는 급진파의 대립과 분열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독점단계로 파악하지 않고 정적으로 파악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 구성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 즉 중앙파는 개량을, 급진파는 사회주의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서는 大野節夫(1972b), R.N Carew Hunt(1961) 129~131, 133면, Massimo Salvadori(1979) 169~180면 참조.

타리아는 민주주의의 획득과 군국주의의 제거를 목적으로 투쟁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카우츠키는 제국주의에 대응하는 전술의 총체로서 소모전략(*Ermattungsstrategie*)을 제시한다.¹⁰⁾ 그에 의하면 독점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경쟁해 온 자본가계급은 기업가연합 자본가단체 등의 강대한 조직을 형성하고 노동자계급은 노동조합, 당의 결성을 통해 역량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적대적인 두 계급이 조직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양자가 조직을 결고 일대 결전에 이르지 않는 한, 노동자는 민주주의적 제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추구하면서 전진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1905년의 러시아에서는 정부가 완전히 고립되었으나 오늘날 프러시아에서 고립된 것은 프로레타리아이기 때문에¹¹⁾ 프로레타리아가 더욱 강화되고 적이 더욱 약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전쟁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카우츠키는 생각했다.¹²⁾ 여기에서 카우츠키의 소모전략은 제국주의가 정체한다는 이론과 전쟁의 발발은 저지되어야 한다는 도덕위에서만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카우츠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소모전략은 전쟁시에 불가능하고 불합리하며 평화를 담보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자신의 정체를 재분할 투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더욱기 폭력적인 해결방법으로서 전쟁을 급속히 진전시켰다. 당이 종래의 소모전략을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곤란에 직면했을 때에는 소모전략은 전멸전략(*Niederwerfungsstrategie*)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대전이 일어나자 카우츠키는 교묘한 논리를 내세운다. 즉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으며, 전쟁이 종결될 때까지는 각국의 사회주의자가 자신의 조국을 방위하고 자국의 정부를 지지해야한다. 전쟁이 끝나면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면서 전쟁수행에 조력했다.¹³⁾

이와 같은 카우츠키의 인식은 당시 제2 인터내셔널에 자라고 있던 기회주의적 제조류와 융합하여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를 띄고 발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카우츠키를 중심으로하는 기회주의적 사회배외주의적 제조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비판은 주로 1차대전이 민족전쟁이 아니라 어느 면으로 보아도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조국방위, 방위전쟁의 스톱건은 현실을 왜곡하여 부르조아지의 이해를 대변하고

10) 소모전략은 SPD내부에서 일어난 대중스트라이크논쟁(Die Massenstreikdebatte)에서 제기되었다. 논쟁과정에서 프로이센의 선거제도 개혁, 1905년의 러시아혁명과 1910년의 프러시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하면서 카우츠키와 로자 룩셈부르크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선거제도의 개혁은 사회주의적 계급투쟁의 일부이며 이것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러시아 프로레타리아가 행한 대중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국제적인 사회주의운동을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Massimo Salvadori 136~138면) 이에 대하여 카우츠키는 대중 스트라이크는 혁명적 상황에서만 고려될 수 있으며 민주적 제권리를 획득한 프로이센의 상황에서는 성과를 바랄 수 없고 오히려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11) Massimo Salvadori(1979) 143면

12) 같은 책 145면, 大野節夫(1972a) 35면

13) 독일 사민당 내부의 우파와 중우파와의 근본적인 입장은 1차대전이 자국에 있어서 민족전쟁이며 정의의 전쟁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우츠키는 전쟁이 제국주의적인 동시에 민족적인 것임을 증명하려고했다. 즉 각국의 당은 이 전쟁을 오로지 방위전쟁으로 간주하고 그 목표를 적극적으로 부러 방위에 한정하고 적국의 징벌과 축소를 지향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W.Z Foster 247~250면) 그 현실적 근거로서 「러시아 짜르에 대한 전쟁」임을 강조했다지만 그것은 동시에 러시아의 연합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라는 모순된 정당화였다 (Massimo Salvadori(1979), 182면). 또한 전시공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카우츠키는 기권하면서, 정부가 아닌 방어의 목적에 사용될 전시공채의 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같은 책 182면).

프로레타리아를 기만했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한다.¹⁴⁾ 이러한 실천적 배경에서 제국주의의의 제조류를 비판하고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을 구명하기 위하여 『제국주의론』이 쓰여졌다. 불어판 및 독어판 서문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은……20세기 초 즉 제1차 제국주의 세계전쟁의 전야에, 세계경제체제의 복잡한 구도를 국제적 관계속에서 조망하는 것”이며 이 pamphlet에서 1914~18년의 전쟁은 양 측면에서 보아 제국주의적인(즉 침략적인, 약탈적인, 강도적인)전쟁 즉 세계분할을 위한, 식민지와 금융자본의 세력범위의 분할과 재분할을 위한 전쟁이었음이 증명된다.¹⁵⁾

이상에서 볼때, 『제국주의론』은 눈앞에 벌어진 세계대전의 계급적 성격을 폭로하고 직면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 제정당의 실천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국주의론』은 다른 제국주의론자에 대한 비판서의 성격이 강하고 『자본론』에서와 같은 추상수준에서의 논리성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본론』의 기초이론을 전제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변용의 측면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국주의론』은 평이한 개설(*A popular outline*)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국주의의 모든 것을 해명했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실천에 근거하여 제국주의의 모순을 당시의 역사과정에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제국주의론』이 성립배경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 『제국주의론』의 성립배경과 거기에 내재된 문제의식을 제거하면, 그 자체의 검토와 그에 대한 비판은 실득력을 가질 수 없게된다. 제국주의를 식민지 침략 혹은 합병으로만 이해하거나, 『제국주의론』의 의의를 자본수출론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¹⁶⁾ 『제국주의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이론적 실천적 배경에 주의하여 역사과정 총체와 더불어 『제국주의론』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된다.

III. 「제국주의론」의 방법론적 특징

전체적으로 보아 『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의 구조를 고찰하는 이론적 분석과 제국주의가 위치지워져야 할 역사적 분석을 공유하고있다. 『제국주의론』에서 레닌은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제국주의의 제현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제7장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서 제국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적 제특징을 총괄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는 제국주의를 정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1)생산과 자본의 직접적 경제생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을 창출할 정도로 높은

14) 이 시기에 레닌에 의해 쓰여진 대부분의 pamphlet은 해닌전집 21, 22, 23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세계대전의 성격과 카우츠키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한다. 중요한 것으로는 *The Task of revolutionary Social democracy in the European war*(1914),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1914), *Opportunism and the collapse of the second International*(1915), *Socialism and the war*(1915), *The Military programme of the proletariat Revolution*(1916), *Imperialism and the split in socialism* (1916) 등이 있다.

15)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Collected Works Vol 22*. 189~190면.

16) 흡슨과 레닌의 외형적 유사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제국주의론』을 자본수출론으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제국주의를 식민주의와 동일시하는 유파도 존재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견해로는 D.K Fieldhouse(1961), 후자의 견해로는 C.W.Lindsey(1982), E.J.Strachey(1959)를 들수 있다. Fieldhouse에 대한 비판은 서정훈(1988)을 참조.

단계까지 진전한다. (2)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 그리고 이러한 금융자본에 기초한 금융과두제의 창출. (3)상품수출과 구별되는 자본수출이 특히 중요한 의의를 획득한다. (4)세계를 분할하는 국제적인 독점자본가 단체의 형성. (5)최대의 자본주의적 열강사이에 세계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다.

독점자본주의는 독점체와 금융자본의 지배가 확립되고, 자본수출이 중요성을 획득하고, 국제적인 트러스트간에 세계의 분할이 시작되며, 최대 열강사이에 지구의 영토적 분할이 완료된 발전단계의 자본주의이다. (*Collected Works Vol 22, 267~8면*)

이러한 특징은 제국주의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며 19세기 말 부터 20세기 초의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규정을 주 내용으로한다. 즉 이러한 의미로 이해된 제국주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자본주의의 특수한 발전단계라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발전단계가 갖는 역사적 특수성은 제 8장부터 제10장에 걸쳐 카우츠키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 지적되고 『제국주의론』과 같은 해에 집필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에서 명료하게 서술되어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에 대하여 가능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단계이다. 그 특수성은 다음 3가지이다. 즉 제국주의는 (1) 독점자본주의 (2)기생적인 또는 부패한 자본주의 (3)사멸하는 자본주의이다.”(*Collected Works Vol 23, 105면*)

이상과 같은 레닌의 파악은 이론적인 분석방법과 역사적인 접근방법을 내포하는 것이며 정책으로서의 제국주의 파악이나 유형으로서의 제국주의 파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국주의의 제특징을 도출하는 논리적 서술과정에서도 레닌의 방법론적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즉 생산의 집적에서 출발하여 금융자본의 성립, 자본수출의 중요성 확인, 국제적인 독점체의성립, 세계의 영토적 분할완료에 이르기까지의 논리전개는 가장 추상적 개념인 생산의 집적에서 점차 구체화하여 가장 구체적인 세계의 분할로 상향하는 마르크스의 방법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즉 생산의 집적은 상향의 출발점이며 하향의 도달점에 해당하는 기초범주인 것이다.

그렇다고 레닌이 생산의 집적을 제국주의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발전』에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자본주의는 구래의 분산적 생산에 대신하여 농업과 공업 양 부문에 있어서 전례없는 생산의 집적을 대체시킨다.”(*Lenin(1989) 605면*)

여기에 생산의 집적이 자본주의 일반에 나타나는 경향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반세기 전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역사적 분석을 통해 자유경쟁은 생산의 집적을 야기하고. 이 집적이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독점을 유도한다고 증명했다. 오늘날 독점은 실현되었다.”(*Collected Works Vol 22. 200면*)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이 생산의 집적으로 개념화되

어있다. 즉 이 개념은 『자본론』체제와 제국주의론을 이론적으로 연결시키는 텃줄이며 독점을 유도하는 단서이다. 생산의 집적이 분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레닌이 힐퍼딩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힐퍼딩의 『금융자본론』은 5편으로 구성되어 제 1편~4편에서는 이론적인 부분을 제 5편에서는 정책론을 다룬다.¹⁷⁾ 여기에서 제국주의의 현상을 직접 다루는 정책론은 제 1편~4편의 금융자본의 운동법칙을 기초로 전개된다. 왜냐하면 힐퍼딩에 있어서 “근대자본주의의 특징은 집적과정이며 그것은 한편으로 카르텔·트러스트 형성에 의한 자유경쟁의 지양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점점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 관련을 통해 자본은 가장 고도화된 추상적인 현상형태인 금융자본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법칙과 기능에 대한 인식없이 현재의 경제적 경향을 이해할 수 없으며 나아가 경제과학과 정책은 불가능해진다.”¹⁸⁾ 여기에 금융자본이 근대 자본주의(제국주의)의 기본개념으로 등장하고 금융자본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화폐→신용→주식회사론과 주식제도하에서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자본의 지위→자본시장으로서의 증권거래소→화폐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를 체현하는 상품거래소→카르텔·트러스트에서 정점을 이루는 집적이 순차적으로 분석된다.¹⁹⁾ 이와 같이 『금융자본론』의 전체계는 유통과정에 대한 분석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어있다.

힐퍼딩에 있어서는 『금융자본론』에 나타난 체제뿐만 아니라 그 내용 즉 화폐론과 공황론에서도 유통중시의 경향이 나타난다. 마르크스는 “특정한 생산양식은 소비, 분배, 교환양식을 결정하고 이들 제요소 상호간의 특수한 관계를 규정한다”²⁰⁾는 유물론적 입장을 견지하는데 반해, 힐퍼딩에 있어서는 교환관계, 유통관계가 더욱 본질적이다. 화폐의 기능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화폐가 유통관계에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알 수 있다. 그것(화폐)은 우선 유통수단이다. 그것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되어서야 비로소, 지불수단이 된다”²¹⁾는 전도된 인식을 힐퍼딩은 가지고 있었다. 유통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화폐)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화폐의 가치가 화폐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사회적 필요노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또한 “공황은 단순한 상품유통의 조건에서가 아니라 상품유통의 자본주의적 조건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²²⁾ 하여 공황을 유통의 교란에서만 고찰하는데 그치고 생산과의 유기적 관련을 무의식적으로 축소하였다.²³⁾

이와 같은 힐퍼딩의 유통주의적 관점이 레닌에게 받아들여 졌으나 후에 곧 수정되는 과정이 『제국주의론 노트』잘 나타난다. <notebook--β>에 『제국주의론』에 대한 플랜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17) 『금융자본론』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 1편 화폐와 신용 제 2편, 자본의 동원, 의제자본, 제 3편 금융자본과 자유경쟁의 제한, 제 4편 금융자본과 공황, 제 5편 금융자본의 경제정책

18) R. Hilferding (1910), 17면.

19) 같은책 18~19면.

20) K. Marx(1859), 205면.

21) R. Hilferding 37면.

22) 같은책 332면.

23) 힐퍼딩의 유통주의적 관점은 후일전개된 「조직된 자본주의론」의 맹아를 형성한다. 이용우는 힐퍼딩의 소유의 사회화론을 중심으로 독점이론을 전개한 결과 자본주의적 계급적대, 착취의 본질 문제가 상대적으로 해소화 되었고 후에 「조직된 자본주의론」으로 경사되었다고 주장한다. 李龍雨(1988), 67면.

“제국주의=

- (1) 은행자본
- (2) 독점체(트러스트등)
- (3) 세계의 분할[식민지]
- (4) 은행(금융자본)과 국가기구의 동맹(결합, 융합)
- (5) 집중의 최고단계”

(*Collected Works Vol 39, 116~7면*).

“제국주의 문제에 대하여

- 24) 5·1 금융자본
 - 4·2 은행
 - 2·3 카르텔과 트러스트
 - 3 독점
 - 1·4 집중과 대규모 생산
 - 6·5 자본수출
 - 7·6 식민지, 그 중요성”(같은책 201면)

그리고 이를 다시 정리하여

“대략적으로

- 1· I 집적의 귀결로서 독점
- 2· II 자본수출(중요한 문제로서)
- 3· III

세계의 분할	{	(α) 국제자본의 협정
		(β) 식민지
- 4· IV
- 5· V 은행자본과 그 끈
- 6· VI 자유무역과 평화적 교환에 대한 폭력정책의 대체(관세·약탈등)”(같은책 202면)

여기에서 나타난 『제국주의론』의 플랜변화를 통해 레닌의 인식변화를 볼 수 있다. 처음에 인용한 플랜의 기본구조는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힐퍼딩과 매우 유사하지만 수정을 거치면서 반힐퍼딩적으로 발전한다.²⁵⁾ 이것은 방법론적으로 볼 때 힐퍼딩의 유통주의적 시각에서 레닌 독자의 구상으로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레닌이 독점형성에 있어서 콤비네이션의 역할, 금융과두제의 발전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 금융자본의 개념과 식민지 정복등 많은 부분에서 힐퍼딩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지대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방법

24) 오른편의 번호가 처음에 쓰여지고 왼쪽편의 번호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25) 『제국주의론』이 집필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플랜에 대한 수정이 계속되어 <notebook-y>에서는 현행 『제국주의론』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다. (*Collected Works Vol 39, 242~243면 참조*) 이러한 플랜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으로 清水嘉治(1985), 12~19면, 降旗節雄(1978), 183~201면을 참조하라.

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그러면 생산의 집적은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 독점을 유도하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레닌은 마르크스가 이미 증명했다고 언급할 뿐 논리적 설명은 생략한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의 집적·집중에 대해서 논의할 뿐 생산의 집적이라는 개념은 나타나지 않는다. 더욱이 마르크스는 독점의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은 자제한다.²⁷⁾ 이러한 레닌의 논리적 비약을 매개하는 즉 생산의 집적과 독점을 연결시키는 이론으로 자본의 집적 집중론과 주식회사론의 제기되고 있으나²⁸⁾ 생산의 집적은 자본의 집적·집중의 구체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본의 집중의 한 형태로서 주식회사론도 포괄한 것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생산의 집적은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인 『생산의 사회화』의 실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부연하면 레닌은 생산의 집적을 서술할때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생산수단의 집적과 노동의 집적을 대비시킨다. 이것은 다수의 노동자가 대규모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협동적으로 노동하고 대량의 생산물을 생산하는 사회적과정의 구체적 내용인 생산수단과 노동의 사회화를 의미한다. 한층 발전된 생산의 집적은 유통의 집적 내지 상업의 집적을 촉진시키고, 이들은 자본의 집적·집중으로 구체화된다. 이것은 은행자본의 독점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은행업무가 발전하고 소수의 손에 집중됨에 따라, 은행은 중개자의 소극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거의 모든 자본가와 소경영주의 화폐자본 및 한나라 또는 여러나라의 생산수단과 원료자원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강력한 독점체가 된다.”(Collected Works Vol 22. 210면)

여기에서 은행업무의 집적은 유통의 집적 또는 상업의 집적을 의미한다. 은행은 업무의 집적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켜 자본의 집적·집중을 야기한다. 이리하여 금융자본이 성립하고 금융과두제가 창출되며 그 주요한 수단으로서 모회사가 주식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를 지배하고 자회사는 다시 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제도가 등장한다. 따라서 레닌에 있어서는 생산의 집적→자본의 집적 집중→그 수단으로서 주식회사제도로 분석의 대상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결국 생산의 집적은 생산력의 발전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자본의 집적·집중은 사적소유의 확대로 나타나며 양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또 레닌은 선진국에 있어서 생산의 집적을 양적인 측면에서 예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26) 太田은 레닌의 힐퍼딩에 대한 영향을 강조한 나머지 “제국주의론은 어떤 의미에서 『금융자본론』을 일반 이론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太田仁樹(1985), 132면) 그결과 양자의 방법론적 차이를 간과하고 이론적인 차이를 양자의 집적시기와 연구대상의 차이로 왜소화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27) 마르크스는 자본의 집적·집중을 정의한 뒤 “자본의 집중 또는 자본에 의한 자본의 흡수는 여기에서 전개될 수 없다. 단순히 시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Marx (1977), 586면.

28) 자본의 집적·집중론은 入江節次郎(1968), 富森虎兒(1973), 주식회사론의 입장은 宇野弘藏(1971), 宮本義男(1972)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제도의 일반화를 계기로 독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독점의 필연성과 질적 역사적 규정이 경시되는 경향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있으나 『제국주의론』을 『자본론』에 매몰시켜 『제국주의론』이 갖는 의미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

도출한다.

“보호관세인가 자유무역인가하는 개개의 자본주의국들간에 차이는 독점의 형태 또는 발생 시기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않는 변화를 초래할 뿐, 생산의 집적에 의해 독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의 현단계에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법칙이다” (Collected Works Vol22, 200면)

여기에 생산의 집적이 갖는 질적 규정성이 나타난다. 자본의 집적·집중의 경향은 생산의 집적에 기초하여 대규모 생산부문을 성립시키고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독점이윤을 항상적으로 확보하는 메카니즘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생산의 집적·자본의 집중이 자유경쟁에서 독점으로 이행을 매개하는 필연적인 고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의의가 있다.

독점의 성립과 지배는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취득의 자본주의적 성격을 한층 더 격화시킨다. 독점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일반적 속성은 변화하지 않지만, 자본주의의 양적인 발전은 질적 변화의 계기를 내포하는 것이다. 즉 기본모순의 구체적인 현상 형태인 생산의 집적과 자본의 집적·집중은 서로 대립·발전하면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일반과 구별하고 새로운 단계를 기초지운다. 다시 말해서 자유경쟁에서 독점의 성립을 자본주의일반의 계속인 동시에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는 질적 계기를 포함한다. 레닌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형성하는 독점은 사적 독점으로서 자본주의속에서 발생하여 자본주의·상품생산·경쟁이라는 일반적 환경에 있고 더우기 이 일반적 환경과의 부단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모순중에 있는 독점”이다. 동시에 그것은 자유경쟁이라는 자본주의와 상품생산일반의 기본적 속성을 부정하면서 경쟁의 완전한 자유에서 완전한 사회화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있다. 즉 경쟁이라는 일원적 논리로 관철된 자본주의가 생산의 집적에 기초하여 고도의 발전단계에서 자신의 태내에 독점의 발생이라는 자기부정의 원리를 포섭함으로써 과도기의 역사를 스스로 전개하는 것이다.²⁹⁾ 즉 레닌은 단계론적 구성을 시도하여 제국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구명하고자했다.

지금까지 보아온 레닌의 방법론적 특징은 금융자본개념에서도 나타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분석에 금융자본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힐퍼딩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산업자본중 그것을 사용하는 산업자본가에게 속하지 않는 부분이 점점 증가하고있다. 그들은 자본의 처리권을 그들에 대하여 소유권을 대표하는 은행을 통해 비로소 획득한다. 한편 은행은 자본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을 산업에 고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때문에 은행은 점점 산업자본가로 된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산업자본으로 전화하고있는 은행자본 따라서 화폐형태의 자본을

29) 南克己는 독점단계에서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은 이 주요모순(경쟁과 독점간의 모순—인용자)을 전개시킬 만큼 고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독점단계에서 기본모순은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재생산 과정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고 스스로 체제해체의 위기를 현실에서 전개한다고 주장한다. (南克己(1964) 7면 참조) 이러한 모순의 내적 연관을 간과하면 독점이 경쟁을 소멸하여 생산의 무정부성과 공황이 제거되고 자본주의는 보다 조직화되고 안정화된다는 힐퍼딩 나아가 카우츠키적 오류를 반복하게된다.

나는 금융자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은행에 투하된 자본의 최대부분은 산업자본으로 전화되고 생산과정에 고정된다.

산업에 사용된 자본의 점점 증대하는 부분이 금융자본이다. 즉 은행이 처리하고 산업자본가가 사용하는 자본이다.”(Hilferding(1910), 309면)

이러한 힐퍼딩의 정의에 대해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힐퍼딩의 정의를 인용한후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이 정의는 가장 중요한 계기—생산과 자본의 집중이 독점을 유도하고 독점을 유도할 정도로 현저하게 발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없는 한 불완전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힐퍼딩의 서술 전체속에서 정의가 내려진 두개의 전장(12장, 13장—인용자)에서 자본주의적 독점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생산의 집적, 거기에서 성장하는 독점체, 은행과 산업의 융합 내지 유착 이것이 금융자본의 발생사이고 그 개념의 내용이다.”(Collected Works Vol 22, 226면)

레닌이 비판하고 있듯이 힐퍼딩은 “은행집적의 제 1 원인은 산업집적이다”³⁰⁾고 정당하게 지적하면서도 전체계를 통해 생산 내부에서 일어나는 발전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금융자본에 대한 보편타당한 정의를 내지 못했다. 윌쓰너(Olß ner)도 “힐퍼딩은 주로 유통과정에 주목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에게 있어서 대경영의 발전, 요컨대 독점의 발생과 금융자본발생간에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실로 기묘한 것 이지만 힐퍼딩은 한번도 은행업의 집적과정이라든가 대은행의 지점, 예금부나 어음거래의 팽창 혹은 거기서 발생하는 독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않는다”³¹⁾고 비판한다.

힐퍼딩의 개념규정에서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결점은 은행과 산업의 관계설정에 있다. 그는 당시 독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은행의 산업지배』(die Herrschaft der Banken uber die Industrie), 『산업의 은행에의 종속』(die Abhangigkeit der Industrie von den Banken)을 『독일 자본주의의→은행중심적 금융자본규정→일반이론화』라는 구도로써 정식화하고 있다. 『특수한 것』을 무매개적으로 『일반화』한 오류이다. 이것은 『고리대자본—은행자본—금융자본』이라는 유통주의적 파악³²⁾과 결부되어 금융자본을 은행자본이라는 일면적인 것으로 왜소화시켰다. 또한 상품의 실현문제를 항상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산업자본에 대하여 항상 화폐형태로 실현문제에 대하여 해방되어있는 은행자본의 우위, 그리고 이윤율은 저하경향을 나타내는데 비해 이자율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서 은행의 우위와 그 세력증대의 원인을 찾는다.³³⁾

30) Hilferding(1910), 123면.

31) 윌쓰너의 서문 林要譯(大月書店), 30면.

32) 힐퍼딩은 헤겔적 유추로서 「은행자본은 고리대자본의 부정이며 그 자체는 금융자본에 의해 부정된다. 금융자본은 고리대자본과 은행자본의 종합」이라고 파악한다. Hilferding(1910), 310면.

33) Sweezy는 1930년대 미국의 실증분석을 통해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자본의 우위를 부정하고 나아가 금융자본개념 자체를 부정했다. 그에 의하면 대규모 독점적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하는 대신 적립금의 형태로 자기금융을 강화함으로써 신증권 발행시장에 대한 의존이 축소되고 결국 생산기능에 참여하지 않는 은행권력은 약화소멸되어 산업자본에 대한 2차적 지위로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자본의 지배는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일시적 국면이기 때문에 “금융자본”을 “독점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다. P. M. Sweezy(1956), 266~9면 참조.

힐퍼딩은 유통부문에 초점을 두고 은행의 우위를 강조하는데 반해 레닌은 생산과정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적 독점에 크게 주목하고 이것을 금융자본성립의 결정적인 모멘트로 생각한다. 레닌에 있어서 금융자본개념을 형성하는 두가지 계기 즉 생산과 자본의 집적, 은행과 산업의 융합 내지 유착증에서 전자는 유통주의적 관점의 비판적 극복이며 후자는 은행중심주의적 관점의 비판적 극복이다. 레닌 자신도 “산업자본가는 은행에 점점 완전하게 종속해간다”³⁴⁾는 인식도 보이지만 이것은 전후맥락으로 보아 은행업무의 집적과정에서 독일 은행의 역할에서 보아 그러하다는 의미이며 일반화시키지는 않고있다. 또 레닌은 다른 곳에서 “금융자본은 독점적 기업가단체의 자본과 융합한 소수 대은행의 은행자본”³⁵⁾이라고 서술하고있다. 이렇게 보는 한 레닌은 일관하여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관계를 대등한 또는 양자의 일체화로서 파악한다.

「은행의 산업지배」는 독일 특수적 현상에서는 무시될 수 없지만 그것이 없다면 금융자본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근본적인 조건은 아니다. 산업기업과 은행이 융합(유착)할 때 그 결합 형태는 반드시 일정한 것이 아니며 또 한번 취해진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스워지가 강조하는 자기금융도 금융자본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금융으로써 산업기업은 은행등 외부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자기금융을 충분히 큰 규모로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금융세력으로 되어³⁶⁾ 축적자금을 대부자본으로 전화하여 자회사 혹은 다른 산업분야로 진출하는 금융자본 형성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레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은행과 산업기업간의 주도권의 소재가 아니라 독점을 축으로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라는 인식의 일환으로 금융자본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힐퍼딩의 금융자본 파악이 「조직된 자본주의론」으로 귀결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레닌의 파악은 「소유와 기능의 분리」에서 그 단서가 주어진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이전에는 자본가는 소유와 기능을 한 몸에 지녔고 설령 자본의소유와 기능이 분리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소유와 기능의 분리는 일반적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재생산과정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³⁷⁾을 수행하면서 “동일한 자본에 의해 생기는 이윤에 대하여 각각의 청구권을 가진 서로 다른 두 인격”³⁸⁾으로 나타난다. 소유를 대표하는 화폐자본가는 “자본소유의 단순한 과실”³⁹⁾인 이자를 취득하고 기능자본가는 자본의 비소유자로 “기능의 배타적 과실로서 자본의 운동및 진행의 과실로서 기업가이득을 취득한다.”⁴⁰⁾ 즉 자본은 “생산과정의 외부에서

34) Lenin, Collected Works Vol 22, 220면

35) 같은책 266면

36) S. Aaronovitch(1967), 72면.

37) K. Marx(1977) Vol III, 372면.

38) 같은책 374면.

39) 같은책 374면.

40) 같은책 374면.

이자를 가져오는 자본과 생산과정의 내부에서 생산을 진행하면서 기업가이득을 가져오는 자본으로 분할된다.”⁴¹⁾

이러한 분리과정은 신용제도와 더불어 발전하고 주식회사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전면화된다. 이때 자본소유에 귀속하는 이자만큼 기능자본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산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잉여가치의 증대로 인해 증가한다. 따라서 생산과정 외부에 있는 화폐자본(은행자본)은 이윤의 일부인 이자를 항상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능자본과 결합하지 않으면 안되고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산업자본은 재생산 규모의 확대로 더 많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자본과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실에서 소유와 기능이 분리된 자본은 화폐자본가와 기능자본가간에 이윤배분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 상호존관계에 있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 여기에 있다.

소유와 기능의 분리는 레닌에게 자본주의의 일반법칙으로 받아들여졌고 독점적 산업자본과 독점적 은행자본이 융합 유착하는 금융자본의 지배는 독점자본주의에 고유한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나아가 자본주의에 내재한 이 경향이 주식제도를 통하여 전사회적 규모로 확대되고 그 내적 관계는 은폐되는 것이었다. 레닌은 이렇게 말한다.

“자본의 소유가 생산에의 자본투하와 분리되고 화폐자본이 산업자본 혹은 생산자본과 분리되며 화폐자본에서의 수입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금리생활자들이 기업가와 자본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로 부터 분리되는 것은 자본주의 일반의 특징이다. 제국주의 또는 금융자본의 지배는 이러한 분리가 거대한 규모에 도달하는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이다.”(*Collected Works Vol 22, 238면*)

금융자본의 지배는 소유와 기능의 분리가 극한에까지 진전되고 새로이 재통합이 시작되는, 양적인 변화가 지양된 새로운 단계의 지표로서 파악된다.⁴²⁾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레닌은 금융자본이 제국주의에 고유한 기생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즉, 금융자본은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독점이윤을 수탈하고 몇몇 금융과두제 국가는 전세계의 피억압민족국가로부터 독점이윤을 수탈하여 경제적으로 기생적 성격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독점적 고이윤으로 자국노동자의 상층부를 매수하여 금융과두지배체제에 편입함으로써 사회정치적으로도 기생적 성격을 강화한다. 이러한 기생성은 제국주의의 특수한 한 측면이 아니라 독점의 여러 현상형태에 의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제국주의의 전면적 특징이다. 이것은 국내적 규모 나아가 세계적 규모에서 정치적 반동, 민족적 억압 내지 병합을 초

41) 같은책 375면(방점은 이탤릭체).

42) 降旗節雄은 자본소유와 자본기능의 분리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법칙이 아니며 자본주의 일반과 구별되는 제국주의 단계에 고유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降旗節雄(1978), 219~20면), 이러한 인식은 宇野류의 분절적 사고에 연원을 두고 주식회사제도의 전개에 따라 제국주의를 유형화시킨다. 그러나 주식회사제도는 자본을 동원하는 형태에 불과하며 문제의 핵심은 주식회사제도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에 내재하는 생산과정을 기반으로 운동하는 독점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

래한다.

카우츠키나 힐퍼딩은 자본주의적 독점의 의의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독점이 창출하는 제국주의적 기생성을 완전히 간과했다. 즉 한편으로는 금융자본은 점점 자본의주의를 조직화하고 그 정치적 경제적 지배력은 완전무결하게 강화한다고 파악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의 모순을 과소평가한다. 결국 이러한 이해는 제국주의 지양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지적하는데 그친다. 특히 그들은 제국주의적 기생성 나아가 당시 국제적 노동운동 분열의 경제적 기초와 그 정치적 의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기회주의와 실천적으로 융합하게 되었다.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은 단계론적 인식은 자본수출론에서도 관철된다. 레닌에 있어서 자본수출은 자유경쟁단계의 상품수출에 대신하여 제국주의 단계에 있어서 국제경제관계의 창출을 진전시키는 기초를 형성한다. 레닌은 이렇게 말한다.

“전적으로 자유경쟁이 지배적이었던 낡은 자본주의에서는 상품수출이 지배적 이었다. 그러나 독점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최근단계에서는 자본수출이 전형적이다.”(Collected Works Vol 22, 240면)

여기에서 전형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단순히 양적인 증대라고 파악하는 것은 피상적이다. 양적 증대는 자본수출의 전형을 나타내는 현상적 계기이며 그 전체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상품수출에서 자본수출로의 전화는 자기부정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자본수출은 수출된 개별자본의 운동으로 파악되는데 비하여⁴³⁾ 레닌은 그것을 개별자본의 운동이 아닌 자본총체의 순환과정으로 파악한다. 레닌은 “die Bank”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긍정적으로 인용한다.

“최근 국제자본시장에서 아리스토파네스에 필적하는 코메디가 연출되고 있다. 스페인에서 발칸제국에 이르기 까지, 러시아에서 알젠티, 브라질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많은 외국 국가들이 공공연하게 혹은 은밀히 차관을 요구하며—종종 매우 끈질긴 것도 있다.—대 금융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은 활기있는 상태도 아니며 정치적 전망도 밝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금융시장도 이 차관을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접국이 앞질러 차관을 승락하여 모종의 호혜적인 반대급부를 확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거래에서 채권자는 항상 별도의 이득 예컨대 통상조약에서의 유리한 조항, 제탄소, 항만건설계약, 유리한 양보, 대포의 주문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Collected Works Vol 22, 244면, Vol 39, 91~2면)

43) 마르크스는 레닌 또는 힐퍼딩과 같이 체계적인 자본수출론을 전개하지 않고 다만 『자본론』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기술했다. 이것은 그가 그 저술의 중요한 목표를 “부르조아 사회의 내적 구조”를 밝히는데 두고 국제적 제관제를 플랜의 후반체계에 설정한 후 이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적어도 플랜의 전반체계의 영역을 넘지 않는 현행 『자본론』 체계에서는 자본수출이라는 국제적 제관련을 사상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과 정치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되는 자본은 개별자본의 입장에서 자기부정을 의미한다. 즉 자본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증식인 한, 개별자본의 순환으로서 (상품)자본수출은 완전히 후퇴하고, 수출된 자본은 자기부정을 통하여 총자본의 이익을 확보한다. 이러한 자본수출은 상품수출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레닌에 있어서 자본수출은 상품수출과는 구별되는 의의를 획득하고, 그 의의의 구체적 내용이 다름아닌 자본주의가 직접적으로 발전하고 확대된 독점자본주의단계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자본수출의 가능성이 필연성으로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관찰된다.

“자본수출은 수많은 후진국들이 이미 세계자본주의적 교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실때문에 가능하다. 즉 이들 나라에서 간선철도가 개설되었다거나 건설중에 있으며 기타 산업발전을 위한 초보적 조건이 창출되고 있다. 또한 자본수출의 필연성은 몇몇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난숙하고, 농업의 후진성과 대중의 빈곤때문에 유리한 투자영역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Collected Works Vol 22, 241~2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일련의 후진제국이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는 과정은 선진자본주의 제국과의 상품확대를 기초로 한다. 선진자본주의제국과 후진국가의 상품교환 무역거래관계는 한층 더 확대된다고 자본의 국제화 국제관계의 긴밀화가 진전함으로써 후진국에서 공업발전의 조건이 창출된다고 레닌은 파악한다.⁴⁴⁾ 이러한 상황 또는 그 상황을 창출하는 역사적 단계는 자본주의 자유경쟁단계의 세계시장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수출의 가능성은 독점단계에 선행하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으로 이해된다.

이 때 자본수출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매개하는 일정한 조건은 선진자본주의국 또는 자립적 재생산구조를 가진 자본주의제국에서 독점의 형성이다. 이 독점을 매개로 자유경쟁단계의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에 의해 창출된 자본수출의 가능성이 자본수출의 필연성으로 전화하고 나아가 독점자본주의제국과 식민지 후진국의 국제경제관계의 총체로서 제국주의 세계체제가 성립한다. 즉 자본주의의 자유경쟁단계에서는 상품수출이 국제경제관계를 창출하는 기초를 형성하고 자본이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분산적으로 밖에 행해질 수 없었고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상품수출에 대신하여 자본수출이 국제경제관계를 창출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⁴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레닌은 제국주의를 구성하는 기초개념에서 단계규정을 집요하게 강조한다. 국제적 자본가단체에 의한 세계분할도 “자본의 생산의 세계적 집적이 이루어지는 개

44) 자본수출과 후진국문제에 관련하여 레닌은 “자본수출은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의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그 발전을 현저하게 촉진시킨다.…… 그것은 동시에 전세계에 걸친 자본주의 발전을 더욱 확대 심화시킨다.” (Collected Works Vol 22, 243면)고 주장하는데 반해 코민테를 제 6 차 대회(1928년)에서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생산력발전 일반을 저지시키고 전자본제를 유지 온존 시키는 반동적 성향을 갖는다는 자본주의화 저지 경향론이 채택된다. (B. Warren(1980), 107, 109면 참조).

45) 外山忠(1976), 217면 참조.

로운 단계”⁴⁶⁾에서만 가능하고 이것을 토대로 한 식민지정책은 “이전의 자본주의적 식민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⁴⁷⁾고 한다. 이러한 단계론적 규정은 레닌의 말대로 마르크스의 방법론과 일치하며 “주어진 시점에 구체적인 정세에서 역사과정의 객관적 내용을 고려하여 어떤 계급의 운동이 이 구체적 조건에서 진보의 원동력일 수 있는가를 이해”⁴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변화하는 정세에 마르크스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운동과 노동계급의 운동이 아직 미분리된 시기와 제국주의와 세계전쟁의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국주의전쟁은 부르조아 해방운동을 기반으로 한 국제분쟁과 형태적으로 동일하지만 그 사회적 내용과 계급적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객관적인 역사적 조건도 완전히 일변했다. 자본주의는 봉건제와의 투쟁에서는 민족의 해방자이었지만 제국주의적 자본주의는 민족해방자에서 민족최대의 억압자로 변했다는 사실, 자본주의는 진보적인 것에서 반동적인 것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레닌은 강조하고자 했다. 이것을 철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카우츠키의 정책을 실천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레닌은 제국주의에 단계규정이라는 독자적 특징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된다.

VI. 결 론

『제국주의론』에서 레닌이 당면했던 문제는 1차세계대전 of 계급적 성격을 구명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역사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는가는 차치하고 이러한 인식과정에 나타난 방법론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국주의론』 전체에 걸쳐 변증법적 유물론의 인식이 관철된다. 이미 살펴본바와 마찬가지로 레닌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구체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객관적 사실이 갖는 법칙적 연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의 본질인 독점을 도출하고 이것을 다시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나아가 독점이라는 추상적 범주에서 구체적 범주로 상승하면서 구체적 사실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제국주의의 경제적 특징을 종합한다. 이러한 인식은 유통주의적 관점을 극복하고 생산의 집적에서 독점을 유도하고 독점이 유통의 집적을 총괄하여 금융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와 같은 인식의 귀결로서 레닌은 제국주의의 단계적 성질을 강조한다. 제국주의하에서는 자유경쟁단계와는 달리 독점이 성립하고 극단적으로 분리된 자본의 소유와 기능이 재통합되고 자본수출이 전형을 이룬다. 자유경쟁의 자기부정, 소유와 기능의 분리의 통합, 개별자본

46) Lenin, Collected Works Vol 22, 246면.

47) 같은책 260면(방점은 인용자).

48) Lenin, Under a false flag, in Collected Works Vol 21, 143면.

의 자기부정을 통해 자본은 자유가 아니라 지배를 원한다고 레닌은 인식한다. 이것은 마르크스시대의 부정을 통해 제국주의단계에서 마르크스의 복원이라는 실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2 인터내셔널 내부에서 변질된 마르크스주의를 재구축하고 제국주의단계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새로운 발전을 시도한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론』이 현대 세계경제에 무매개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의 분석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에 나타난 방법론적 특질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특징들 사이에 존재하는 내적 관련에 대해서 소홀히 다룰 수 밖에 없었고 『자본론』과 『제국주의론』의 관련에 대해서도 암시하는데 그쳤다. 또한 이들 제특징이 제국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각인한다는 점도 사상되었다. 이 문제들과의 관련하여서만 방법론적 특질이 총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논문은 스스로 자기한계를 갖는다.

참고 문헌

- 서정훈(1988),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실증적 비판과 그 한계」, 『울산사학』 제 2 집.
- 이용우(1988), 「독점이론의 형성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Aaronovitch(1967), *The Ruling class*. 勝部元譯, 『イギリスの金融資本』, 新評論.
- R.N.Carew Hunt(1961), *The Theory and practice of Communism*, The Macmillan Company.
- D.K.Fieldhouse(1761), *Imperialism, An Historiographical Revision*, The Economic History Review Vol 14, No2.
- W.Z.Foster(1955), *History of the Three Internationals*, 동녘편집부역, 『세계사회주의운동사』, 동녘.
- R.Hilferding(1910), *Das Finanzkapital*, Europaische verlags anstalt, 1968.
- O.Jeidels(1905), *Das verhältnis der deutschen Großbanken zur Industrie*, Leipzig.
- V.I.Lenin(1989), *The Capitalist Development in Russia*, International Publishers.
- V.I.Lenin, *Collected Works Vol 21, 22, 23, 28, 39*, Progress Publishers.
- C.W.Lindsey(1982),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RRPE, Vol 14, No.1.
- Mandelison(1960) 日譯, 『恐慌の理論と歴史』, 第 4 分冊.
- K.Marx(1859),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Progress Publishers, 1977.
- K.Marx(1977), *Capital Vol. I,III*, progress publishers
- Massimo Salvadori(1979), *Karl Kautsky and the Socialist Revolution 1880~1938*, trans by J Rothschild, N.L.B.
- P.M.Sweezy(1956),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Monthly Review Press.
- B.Warren(1980), *Imperialism, Pioneer of Capitalism ed*, by J.Sender, N.L.B.
- 清水嘉治(1985), 『帝國主義論研究序說』, 有斐閣.
- 宇野弘藏(1971), 『經濟政策論』, 弘文堂.
- 大野節夫(1972a), 『權力への導』と「消耗戰畧」, 『經濟學論集』(同志社大), 第19卷 5.6號.
- 大野節夫(1972.b), 『ドイツ社会民主党の帝國主義論の諸特徴』, 『研究年報 經濟學』(東北大), 第33卷 3.4號.
- 大崎平八郎, 久保田 順(1973), 『世界經濟論』, 青木書店.
- 太田仁樹(1985), 「古典的帝國主義論における世界經濟把握」(下), 『經濟科學』, 第32卷 3號.
- 佐佐木雄太(1978), 「全般的危機論と體制間矛盾」, 『經濟論集』(大分大), 第30卷 1.2號.
- 外山忠(1976), 「資本輸出と國際獨占體」 『經濟學研究』(北海道大) 第26卷 4號.
- 富森虎兒(1973), 『帝國主義論の根本問題』, ミネルヴァ書房.
- 入江節次郎(1968), 『諸國主義論序說』, ミネルヴァ書房.
- 南克巳(1964), 「帝國主義と國家獨占資本主義論」, 『土地制度史學』, 第23號.
- 宮本義男(1972), 『金融資本論への道』, ミネルヴァ書房.
- 降旗節雄(1978), 『帝國主義論の史的展開』, 現代評論社.
- 山本統敏編(1975), 『第2インターの革命論』, 紀伊國屋書店.